

투데이 칼럼

### 안전한 우리집, 작은 실천으로 시작

**겨울철 추위진 날씨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 28%, 전체 화재사망자 중 주택화재 사망자 70%발생되고 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주택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2011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신규주택은 2012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등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더라도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화재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앓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양성빈  
전북도의회 의원

공기가 인간에게 불결하지만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다. 우리는 주택에 대한 안전의식도 현저하게 낮다.  
 이제까지 그랬듯이 화재는 언제나 "남의 일"인 것이다. 그렇지만 화재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한번 시작되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걸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말 그대로 단독으로 설치되고 연기발생 시 경보를 발하여 주는 것으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어 인명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어린이,노약자들에게는 진압보다는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방 속의 소방차"라고 불리는 소화기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간단한 사용으로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 초기 진화에 용이하다.  
 도내에서도 주택에서 화재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소화기로 초기 진화한 경우를 포함하여 약 25여건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한 화재대피 및 진압 사례가 있다.  
 이처럼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저렴한 가격과 간단한 설치에 비해 큰 효과가 있다.  
 안전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안전한 가정을 위해서는 외출 전 가스레인지 확인, 전기기구 등의 전원확인 등 작은 실천과 함께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발적인 설치 등 시민 스스로 실천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독자제언

#### '몸캠피싱',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최근 음란채팅을 원한다며 접근한 후 음란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몸캠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은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소리가 끊어진다. 화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깔도록 해 피해자의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모두 전송되게 한 후 전송된 연락처로 음란사진, 동영상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몸캠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금품 지불을 거절하면 피해자의 가족, 친척,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은 막심하며, 금품을 지불한다 해도 음란동영상을 삭제하기는커녕 강도를 높여가며 추가적인 협박을 일삼는다.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메신저를 통해 음란채팅이 오면 이를 절대 수락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평소 스마트폰에서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을 다운받는 것을 금지하

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 차단 설정 등을 통해 스마트폰이 해킹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몸캠피싱을 당했을때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은 범죄자에게 돈을 절대 송금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채팅화면 및 송금요청계좌를 캡처해서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앱을 삭제하고 폰을 초기화 해야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계정과 동일한 인터넷계정을 탈퇴하고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정보로 재가입하고 유출동영상 삭제전문기업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몸캠피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을 당하는 사례도 있으며 성적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하게 당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피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피싱유형과 대처방법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받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박주현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 아동학대 모두의 관심 필요

필자가 근무를 하면서 접한 사건 중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은 아동학대사건이다.  
 피해아동을 조사하던 중 혹시나 자신으로 인해 부모가 처벌받으면 더 큰 학대로 돌아올까 무서워하던 피해아동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뉴스로 전달된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학대부터 계모, 계부 심지어 친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많은 아동학대가 '집안일'로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세상에 드러나는 건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된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가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거

나, 심한 경우 죽고 난 후에야 그동안 겪어온 안타까운 고통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  
 하지만 많은 선진국은 이런 문제에 대비해 단단한 방책을 마련해왔다. 우리도 이제 비로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상적이겠지만, 이웃이나 친구 같은 제 3자의 관심도 누군가에게는 위로, 혹은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경철기동대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사설

### 중소기업 인력 확보의 어려움

중소기업들의 입장과 형편을 헤아려야겠다. 중소기업 쪽에서 밝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전 그대로 여전히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까닭이다. 분명히 그래야될 것이다. 수출 전선의 합병 역할을 하던 것도 잠시 지난 수년간 재미를 못 보았다는 소식이다. 수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보고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그러리라는 짐작이다.  
 전북도는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현주소를 파악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무슨 대책 마련이 있어야겠다. 신규로 확보해야 할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니 도내 중소기업들의 앞날이 걱정이다. 전북도가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말해왔던 것과는 결과가 판관이라서 하는 말이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나 전북도는 중소기업들의 형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관련해 밝은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사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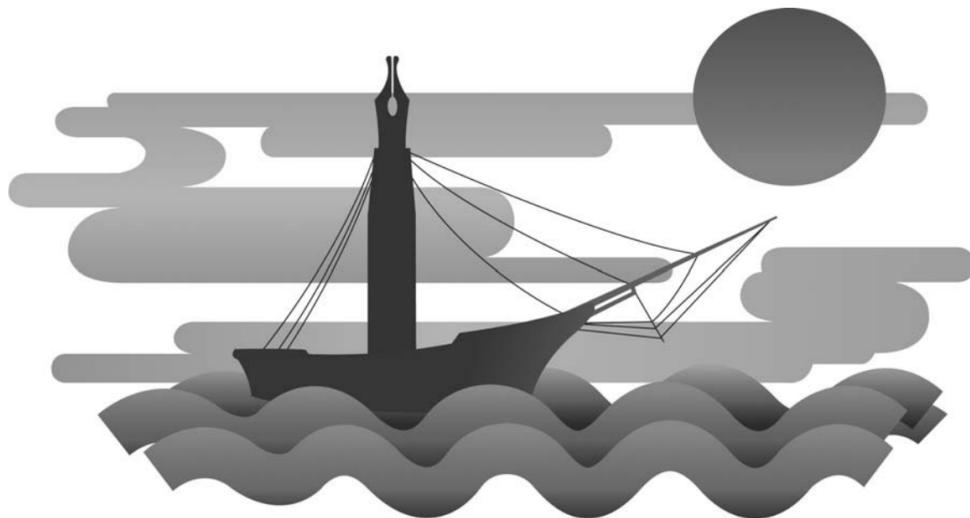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안정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낙관적인 발표를 한 적이 적지 않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다시 중소기업에 눈길을 주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벤처기업들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도내 벤처 기업 상당 수는 젊은이들의 창업에서 출발했다. 지난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벤처기업인 양산과 맞물려 돌아갔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희망의 대상이 안되고 있다. 벤처기업 상당수가 지친 모습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저번에도 말한 바가 있거니와 청년 벤처사업은 신용불량자 양성 사업으로 변질돼버린지 오래이다. 전북도는 벤처기업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게 있다. 흔들리는 벤처기업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야 한다.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답답한 현실 뿐이다. 전북도는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마련을 늘려야 한다. 우선은 신규 인력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다.

###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힘내야

전북발전 현안 사업들 중에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그 비중이 크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그 추진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힘 낼 때이다. 꾸준하게 능동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발전의지를 뜨겁게 달구어야 한다.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익산시는 물론이고 전북지역은 그만큼 발전할 게 틀림 없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힘내야 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익산의 국가 식품클러스터가 제 모습을 드러내면 도내 농가들에게도 괄목할 만한 경제적 실익을 줄 터이다. 또 그만큼 일자리 창출과 고용도 있을 터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언제쯤 현실화 될지 알 수가 없다. 도민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이런저런 주문을 했는데 아직은 그게 기대박이다. 말로는 거창하게 국가식품 클러스터지만 현장을 보면 아직 준비 부족이 역력하다. 지난날의 청사진과 비교해볼 때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터럭거리고 있음은 확실하다. 우선 저조한 분양률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분양률이 왜 저조한지 익산시의 관계자들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입주 분양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 기업들이 바라는 맞춤형 인력 수급체계도 절실하다. 이제 공급대 부족은 홍보는 그만두고 실속이 있는 마련을 내놓아야 한다. 사업을 벌여온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미담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업 관계자들은 엇그체 한 국은행 전북본부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모습은 세계 식품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성공신화의 모습을 보려면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갖는 그 이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도민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대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늘 상기해야겠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